

해외출장(일본) 요약

부서 : 도시사회연구실
과제코드 : 2018-ER-19
출장자 : 김승연
작성일 : 2018년 5월 23일
게시요망일 : 2018년 5월 23일

제목 : [해외출장노트]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 조사를 위한 후생노동성, 가시와시, 도야마시, 세타가야구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

※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,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1. 출장 목적

- 수탁과제로 수행중인 ‘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연구’와 관련하여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 조사를 위한 후생노동성, 가시와시, 도야마시, 세타가야구 방문 및 관련 자료 수집
- 도쿄대에서 진행된 ‘가시와시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’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

2. 출장 내용

1) 동경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전문가 간담회 참석

- ① 츠지 테츠오 교수 ‘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일본의 고령자 정책의 전망’
 - 2025년 이후 단카이 세대(전후 베이비붐 세대)가 75세 후기고령자가 되며, 고령화에 대비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시점. 가시와시 프로젝트의 이노베이션 1: 시설에서 재택으로, 지역사회의 시설·병원을 연계하여 개호서비스 제공형 주택뿐만 아니라 개호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를 구상. 가시와시 이노베이션 2: 가능한 건강하게, 생활습관병 예방, 보람있는 근로나 생애현역지역축진사업 진행



[그림 1] 24시간 지원서비스 제공 거점의 고령자 주택

- ② 이지마 카츠야 “Comprehensive Approach from Frailty Prevention”

-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트레이닝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, 사회참가 등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. 가시와시 거주자 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크와 생활지원을 파악할 수 있는 허약화 체크 사업을 실시
- ③ 스가와라 이쿠오 “가시와시·보람있는 근로프로젝트: 모든 생애 동안 참가할 수 있는 사회 실현”
- 제1기 (2010-2013) 인생 이모작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: 농업, 유치원, 학교법인, NPO 등이 참가하여 고령자 근로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으며, ‘사업총괄조직’을 설립. 지역 사업자가 고령자활용모델을 개발하여 약 200명 고용
- 제2기 (2013-2016) 취업·자원봉사·학습·취미 등 시책의 횡단적 연계와 정보일원화 ‘세컨드 라이브 플랫폼’: 가시와시 생애현역촉진협의회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
- 제3기(2016-)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(후생노동성): 후생노동성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‘협의회’에서 제안하여, 고령자의 지역 근로촉진 사업 실시

2) 도마야시 방문

- ① 마치나카 종합케어 센터
 - 도야마시에서 운영, 2017년 개원한 보건·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시설, 초등학교(폐교)자리를 활용하여 개축한 건물
 - 산후케어, 질병보육실, 의료개호연계실, 진료소, 보육원의 서비스 제공
- ② 특별양호노인홈 (지역포괄지원센터)
 - 2000년 개호보험 시작과 함께 개원했으며 단기보호 10병상을 포함 76병상을 운영 중. 주로 치매수급자들이 많으며, 1주일에 한번 의사가 방문해서 필요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처치를 할 수 있음
 - 센터내에 지역포괄케어센터를 함께 운영. 재택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‘고독사’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

3)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 및 마을재단

- ①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

마을만들기 센터	전구(본청)
<p>사협 지구 담당 직원</p> <p>▶ 만남살롱·드디어살롱(?) 지원</p> <p>▶ 만남서비스사업 진행 담당</p> <p>▶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</p> <p>지역자원개발사업</p> <p>▶ 상담지원업무 ▶ 지역자원파악 ▶ 지역인재발굴, 육성 ▶ 생활지원체제 정비</p>	<p>■ 세타가야구 가족 지원 센터</p> <p>- 가족지원센터 사업/육아지원사업</p> <p>■ 성년후견센터</p> <p>-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/안심 사업/신청절차설명회/법률상담/구민성년후견인 양성 및 지원</p> <p>■ 세타가야구 플랫폼(생활곤궁자 자립상담 지원센터)</p> <p>-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/취업 지원/가계 상담 지원/주거 확보 지원금/수험생 도전 지원 대출/생활 복지 자금 대출</p> <p>■ 일상 생활 지원 센터</p> <p>- 만남 서비스 사업 지원/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/NPO등 협력 회의 단체</p> <p>■ 지역 복지 추진 담당</p> <p>- SOS네트워크/경청 강좌/지역 복지 아카데미</p>

② 마을재단

- 2006년 마을재단으로 통합. 지역사람들의 교류의 장, 지역의 마을만들기 개발의 장, 어린이 육아지원, 어린이 휴게소, 고령자와 장애인 생활지원을 기준으로 오픈 전까지 3단계(구상지원, 시행지원, 개설지원)의 지원제공
- ▲구상지원: 오너와 얘기하면서 활용방법에 대해 상의, ▲시행지원: 공간을 만들면 오너와 재단 직원이 만나서 이벤트 시행 및 운영시스템 정비, ▲개설지원: 재단직원과 운영을 하다가 오너 혼자할 수 있으면 개설지원

4) 개호노인보건시설 타로 방문

- 노인보건시설이 노인시설과 다른 점은 병원에서 노인보건시설을 거쳐 집으로 또는 집에서 이곳을 거쳐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는 융합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병원에 있던 사람이 퇴원하기 전 케어매니저와 직원이 집을 가서 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재활이 필요한지를 판단
- 노년시설은 재가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영양사, 개호복지사,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구성되어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택복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공유. 1층은 데이케어센터(재활 담당자가 상주), 2층 이상은 침상, 3-2층은 치매환자들이 주로 있으며, 재활전문가(언어치료사, 이항요법사 등) 상주
- 노년시설의 평가방법은 재택복귀, 재택요양 지수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며, 시설에서 6개월간 실적을 평가하여 도도부현에 보고하고, 도도부현은 2년에 한번씩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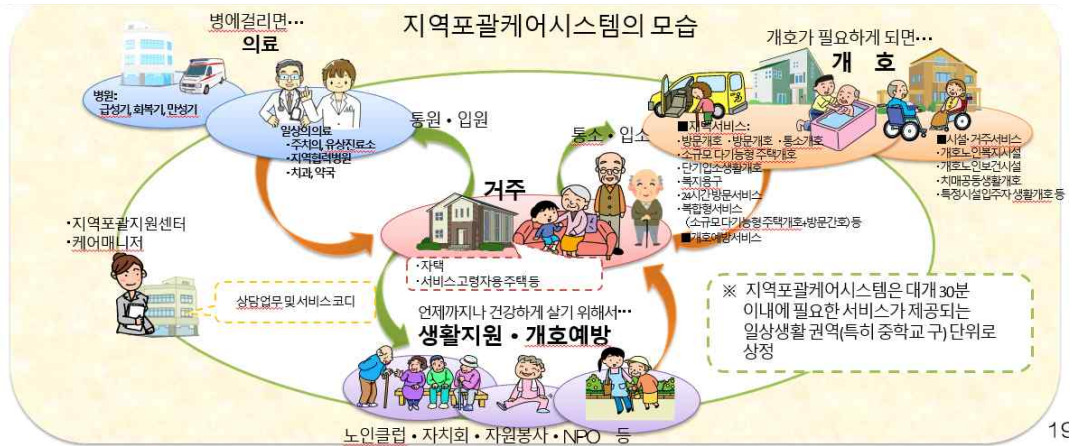
2018년 3월까지	재택강화형 (재택복귀율50%이상)		재택복귀· 요양지원기능가산 (재택복귀율30%이상)		종래형
↓		↓		↓	
2018년 4월부터	기능 강화형 재택복귀· 재택지원요 약기능 가산	기능 강화형	가산형 재택복귀· 재택요양지 원기능 가산(1)	기능 강화형	기타 (좌측 기재 이외)
재택복귀 · 재택양육지원 등 지표 (MAX 90)	70이상	60이상	40이상	20이상	
퇴소시 지도 등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
재활 매니지먼트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
지역공헌활동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
충실한 재활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요건있음	

※ 요개호 4·5는 2주일간

※ 기타 기준은 별지참조(재택복귀·재택요양지원기능에 대한 평가 2018.1.26. 판)

5) 후생성 방문

-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살아온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연계.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스스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며, 지역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의 고민 필요



[그림 2]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모습

-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에 속하며, 생활지원 및 안정을 위한 원조,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시정촌 기준. 하지만 지역포괄케어는 일상생활범위를 고려하며 '시정촌'의 지리적 범위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정촌 한 곳에 여러 개의 센터가 운영
- 주요 업무로 ▲주민상담 업무(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운 점을 광범위하게 상담.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때문에 개호나 노인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 대상으로 상담을 받음), ▲권리, 옹호 업무(치매어르신인 성년후견 등), ▲케어매니지먼트의 지원업무(개호보험 안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지원)임.

6) 카시와시 및 고�령자 주택 방문

① 카시와 시 코히츠지엔 노인복지센터

- 노인복지법인에서 운영. 시설보호 보다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개념으로 개호서비스를 케어 플랜 및 서비스 안내,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원



② 카시와 시 고령자 주택 코코판

- 재택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, 간호동과 자립동으로 구분. 건물 1층에 방문의료, 외래진료,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있으며, 60세 이상 누구나 이용가능(요개호 1-5 모두 이용가능)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입소가 어려움.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자유롭게 입주

고령자주택 전경

시설 구조



3.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수립에 일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

일본 사례 핵심 메시지

- **돌봄이 필요한 사람(노인등)이 재택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면서**
- **교통,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지원과 함께 보건(의료)과 복지(요양)가 연계된 통합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,**
- **마을 주민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, 시정촌(기초 지자체)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재구조화**

2. 재가 복귀 지원의 강화

② 개호노인보건의설 등의 재가복귀 기능 강화

●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(2018.4월)

2018.3월까지	재가강화형 (재가복귀율 50% 이상)		자가복귀요양이원가능 가산 (재가복귀율 30% 이상)		종류형
↓	↓	↓	↓	↓	↓
2018.4월부터	소강화형 재가복귀-에릭 지원요양가능 가산(II)	재가강화형	가산형 재가복귀-에릭 지원요양가능 가산(I)	기본형	이외
재가복귀-에릭 요양종급 (MAX 90%)	70% 이상	80% 이상	40% 이상	20% 이상	이외

○ 실제 정책적 목적인 **중간시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 인센티브 대폭 보장**

- 재가복귀 실적에 따라 수가 대폭 자동화

* 3유형 ⇒ 5유형(18.4월부터)

* 100명 기준 연 6천만엔(한화 약 6억원)까지 자동

* 재가복귀율, 병상회전율 2개 지표가 수가 적용(매 3년)의 가장 큰 비중(40% 이상)

⇒ 노건시설(타로오) : 병원과 재가의 중간시설

* 병원에서 재가로 바로 복귀하기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(3개월) 생활지원(숙식)과 의료적 서비스(의사 상주)를 함께 제공

3. 주거 지원, 교통 인프라 등 지역환경 조성

● 교통 대책 (도야마 市)



▲ 고령자에 도시 중심부(각종 거점시설 집중) 이동권 보장

- 철도(트램) 등을 따라 도시의 제반기능(재건축) 집중
- 요금감면, 손자손녀와 동반시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
- 트램 주변 폐교 등을 도시재생사업(공원 조성 등)에 활용

● 주민참여 (도야마 市, 가시와 市)



* 사진자료 : 도야마 市, 가시와 市 제공

▲ (도야마 市) 개호예방추진리더, 치매서포터, 치매노인 SOS 네트워크 등 자조조직 활성화(지역포괄지원센터 행정지원)

- ▲ (가시와 市) 도요시키단지 내 노인 그룹홈(복지법인 운영)에서 회원 가꾸기, 식사마련 등 지원업무(하루 2~3시간) 종사자로 지역노인 채용, 종사자 중심으로 지역노인 네트워크화

자료제공 및 문의처 :

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부연구위원(2149-1241)